

마을서 도시로 문전배송, 농특산물 판로 개척

—길림철도직업기술대학, ‘촌—사회구역 련동’으로 농특산물 사회구역 진출 추진



배송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는 촌주제 간부 왕가

훈춘시에 파견된 길림철도직업기술대학의 3명 촌주제 간부들이 ‘단체 봉사’를 통해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의 사회구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훈춘시 경진진 이도포촌에 파견된 촌주제 제1서기 왕가는 시민들의 주

문 상황에 근거하여 훈춘시 각 변경촌 제1서기들과 협력하여 우수한 농특산물을 공동으로 조정, 배분하여 훈춘시 변경촌 농특산물의 군집화를 추진, ‘마을에서 도시로’ 진출시키고 편리한 씨비스로 ‘문전배송’을 실현하여 수요

와 공급의 효율적인 관계를 이루었다. 6월 25일, 길림철도직업기술대학에서 파견된 훈춘시 촌주제 간부 왕가, 양위, 단수군 등 3명은 팀을 이루어 훈춘시 양광산수촌아빠트단지에 자원봉사 배송 서비스를 제공

했다. 주문 물품에는 해방촌에서 제조한 콩기름 1통, 이도포촌의 토닭알 50개, 이도포촌 개암 5근, 인삼 꿀절편 15봉지, 건조 오디 1병, 이도포촌 백화꿀 2.5킬로그램, 이도포촌 피나무꿀 5킬로그램 등이 포함되었다.

변경 마을의 우수한 농특산물은 사회구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양광산수촌아빠트단지 주민은 “이 마을에서 나는 꿀은 품질이 아주 좋다.”며 “다음번에도 피나무꿀과 백화꿀을 각각 10근씩 더 구매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구역 주민이 주문하면 제1서기가 주문을 받고 자원봉사단체가 무료 배송하는 ‘촌—사회구역 련동’의 혁신적인 모식을 통해 도시농촌간 농특산물의 소량 화물 유통망 ‘마지막 1킬로미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으며 변경 마을 농특산물의 사회구역 집산화 진출이라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향후 길림철도직업기술대학 파견 간부들은 변경 마을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사회구역에 진출 시킬 예정으로 ‘점에서 면으로’의 확대 적용을 통해 ‘촌—사회구역 련동’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주민 혜택’이라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 김영화기자, 왕가(王佳)

길림성 첫 탄광 저농도 가스 종합리용 대상 기틀 협의 달성



연변주생태환경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지난 6월 16일 훈춘광업(집단) 유한회사는 절강신탄과 학기술회전환경유한회사와 길림성에서 첫번째로 되는 극저농도 가스 종합리용 CCER(국가 인증 자발적 감축량) 기틀 협의를 체결했다. 이는 연변주 탄소배출 거래 사업이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한다.

조인식에서 항주초등에너지기술 주식유한회사 대표가 탄광 저농도 가스 종합리용, 전국 탄소시장 및 CCER 대상 발전에 대해 견해와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참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훈춘광업(집단) 유한회사와 절강신탄과학기술회전환경 유한회사 대표가 기틀 협의를 체결했다. 협의에 따르면 양측은 주로

훈춘광업(집단) 극저농도 가스 종합리용 및 CCER 개발 대상 등 분야를 둘러싸고 심층적인 협력을 펼치게 된다.

알아본 데 따르면 2024년부터 연변주생태환경국에서는 길림성 생태환경청, 중국환경연합인증중심(CEC)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내 탄광 기업을 전면적으로 조사했으며 전문기술팀을 초청해 훈춘탄광(집단) 유한회사에서 탄광 저농도 가스와 저농도 메탄 함유 가스를 리용한 CCER 개발 경로 및 대상 착지방안을 연구했다. 이번 대상은 감광화, 재활용, 자원화 순환경제 리념에 따라 충분히 리용되지 못한 기존의 저농도 가스를 회수, 활용하게 된다.

/ 연변생태환경

동북지역 지리표지총량 전국 10분의 1

일전 국가지식재산권국 대변인이며 판공실 주임인 형부광은 2025년 4월 말까지 동북 3성 1구(내몽골자치구)는 지리표지제품을 루계로 273개 인정하고 지리표지를 집체상표로 심사 비준하였으며 상표등록을 556건 증명하였다고 밝혔다. 형부광에 따르면 동북지역 지리표지총량은 전국의 10분의 1에 접근하고 2024년 지리표지산업의 직접적 생산액은 780억원에 접근했다.

그는 “전국 지식재산권 시스템이 새 시대 동북 전면 진흥을 적극 지원해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올해 4월말 기준 동북 3성과 내몽골 자치구의 유효 특허권은 19만 5,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으며 유효 상표등록 건수는 216만 1,000건으로 7.7% 증가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새시대 동북 전면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 설계 강화 및 지식재산권 법적 보장 확보, 협력적 혁신 촉진을 통한 신질생산력 육성, 보호활용 강화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지리적표지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 진흥 동력 확보,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혁신발전 활력 지속, 국제교류 확대로 고수준 대외개방 촉진 등 6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지역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지식재산권국은 8개 국가급 지식재산권보호센터 및 패속권리보호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고장비 제조, 차세대 정보기술, 생물의학, 신소재, 현대농업 등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원스톱’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2024년말 기준 동북 3성과

내몽골자치구의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 유효 특허 보유량은 4만 6,000건에 달했다. 또한 동북지역의 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유제품업, 조산업(草产业), 신형 에너지 저장, 광산 및 야금 고체폐기물 자원 종합활용 등 핵심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운영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중이다.

지리표지산업 면에서 동북지역에 13개 국가지리표지보호시범구를 고표준으로 구축하고 6개 지리표지보호프로젝트 대상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리표지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의 깊이 있는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국제교류 측면에서 동북지역이 ‘일대일로’ 건설에 깊이 참여하고 대외개방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주요 조치로는 중국국제특허기술 제품교역회를 개최해 유럽, 미국, 일

본, 한국, 로씨야 등 10여개국 참가기업의 특허기술 전시 및 거래를 유치하고 동북지역 여러 도시에서 유라시아 특허 제도 순회 교류회 등을 개최해 국제적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능력 제고 등을 통해 혁신주체들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했다. 동북 각 지역에서는 중국—일본—한국 자유무역구, 중국—몽골—로씨야 경제회랑 등을 대상으로 한 협력 교류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형부광 부국장은 “앞으로 국가지식재산권국과 동북 3성-내몽골자치구 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심히 수행함으로써 동북의 전면 진흥이 더 많은 돌파와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신문넷

연변 1월—5월 외화 환전 봉사 2만 4,000건

1월부터 5월까지 연변주에서는 루계로 2만 4,000건, 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외화 환전 및 현금 인출 봉사를 제공했는데 이는 동기 대비 각각 20.26%, 13.28% 증가한 수준이다.

편리한 관광 구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연변주는 외국인 결제 편리화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 관광객들에게 완벽한 결제 체계를 가져다 주었다. 외국인들의 고액 카드 결제 수요를 중심으로 ‘식사, 숙박, 출행, 관광, 구매, 오락, 의료’ 소비 정경에 중점을 두고 주류 해외 카드 결제에 중점을 둔 상가 규모 확대, 질 향상 활동을 펼쳐 해외 카드 결제 장소를 늘렸다. 5월말까지 해외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상가는 1,292개에 이르러 동기 대

비 105% 증가했다. 한편 공항, 외국인 관련 상권, 5A급 풍경구 등 중점 장소에 초점을 맞추어 은행영업망 외화 환전 봉사 해외 은행카드 ATM 현금인출기, 외화 환전소, 외화 셀프환전기 등 다양한 외화 환전 봉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외화 환전 수요를 충족시켰다.

이의 간편하게 구좌를 개설하는 봉사를 최적화했는데 ‘되도록 구좌를 개설해주고 가능 등급을 나누며 봉사 안내를 강화’하는 원칙에 따라 은행에서 연변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간편하게 구좌를 개설하는 봉사를 제공하도록 인도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연변에 온 외국인들을 위해 루계로 9,734개의 구좌를 개설해주어 동기 대비 23.81% 증가했다. / 연변라디오 TV 방송넷

돈화 경제 발전의 ‘활력 코드’ 알아본다

◆ 다원화 산업의 융합으로 발전 기반 확고히 다져

돈화시는 산업 협력에 중점을 두고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했다. 의약 산업은 농업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중약재 배배로 의약산업에 량질의 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에너지산업은 공업과 상호 보완하면서 공업기업에 청정에너지를 제공하여 생산원가를 절감시켰다. 식품가공산업은 농업과 협동 발전하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있다.

돈화시는 산업 융합,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면서 문화관광의 새로운 경영 방식을 개발하여 관광산업의 승격을 실현했다. 주택객호텔, 자동차구매점, 가전제품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비 증가를 촉진했으며 산수거호텔, 우주캡슐캠핑 건설을 다그치고 발해문화창의산업단지, 발해각 문화관광 체험 대상을 가동하여 다원적인 소비 정경을 마련했다. 이런 조치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한 한편 관련 산업의 협력 발전을 선도하여 다점 지행, 다업 병행의 산업 발전 구도를 형성했다.

길림성 현역 경제 발전의 활무대에서 돈화시는 굳건한 발걸음으로 실무적으로 사업하고 분발하면서 돈화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엮어가고 있다. / 중국길림넷

은 각각 2만 6,000톤, 6,000톤에 달한다. 이런 풍부한 농산물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농업자원 우세를 공업생산력과 경제 우세로 전환시키지 못했다. 돈화시는 공업 사유로 농업을 계획하면서 비유전자변형 대두를 도입하고 중국공급판매농특산물가공산업단지, 집중 구매, 배송 및 안상거래 시장을 세웠으며 황니허복이버섯가래시장을 접합시켜 2024년 규모이상 식품제조 생산액이 12억원을 돌파, 돈화시 경제의 새로운 성장극으로 부상하게 했다.

◆ 친환경 전환 승격으로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 부여

국가 ‘탄소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 전략의 배경하에 돈화시 신에너지산업은 고속 발전의 호기를 맞았다. 돈화시구역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대천촌 대천저수지 중추공사 시공 현장에서 시공팀이 벌목 현장 처리 작업에 한창이었다. 최근년간 돈화시에서 단일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수리공사인 대천저수지 중추공사는 총투자가 6억 3,400만원에 달하는데 도시와 진의 물공급을 중심으로 홍수방지, 관개 기능을 함께 고려했다.

라 돈화시 신설비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성공 사례를 수립했다.

돈화시 전통산업은 설비제조, 광산가공, 목재가공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위험감당 능력이 부족한 등 문제가 뒤따랐다. 이런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돈화시는 식품가공의 심층가공으로의 전환 승격, 기계가공의 설비제조로의 전환 승격, 목제품제조의 첨단제조로의 전환 승격, 에너지광산의 신속하고 순차적인 개발로의 전환 승격을 적극적으로 추동했다.

이중 청도서연국제무역유한회사에서 투자한 농약 중간체 및 신형 내연재료 생산 대상은 총투자가 1억 5,000만원, 총건축면적이 1만 5,000평방미터로 린산트리메틸(亚磷酸三甲酯), 린산트리에틸(亚磷酸三乙酯) 등 화학공업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면서 내연제 및 농약 중간체의 연구개발, 가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대상이 준공되면 년간 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길림성에서 지역 면적이 가장 큰 현금집인 돈화시는 콩 거래량이 80만톤, 목이버섯, 인삼 수출량

가 발전시켰다. 따라서 길림오동은 중국 중약 연구개발 실력 순위에서 26위에 오르고 중화 전통 브랜드 중 의약 기업 10위 안에 들었으며 화강약업의 생산액은 10억원 관문을 돌파하여 돈화시 의약산업의 또 하나의 리징표로 되었다.

의약산업 확장 면에서 돈화시는 신형 의약 대상을 적극적으로 도입, 육성하고 금패격원료약품기지 대상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장했으며 돈화시 의약산업의 제품 라인업을 일층 풍부히 하고 기술혁신 및 설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의약산업이 중앙, 화학약품, 생물약품, 의료기계 다점 지행, 군집집약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했다.

◆ 전통산업의 다원화 경제로의 전환 승격 다그쳐

2025년 1월 27일, 아련기계는 심수증권거래소 주거래시장에 공식 상장되며 길림성 2025년 첫 A주 상장 기업으로 되었다. 최근년간 돈화시는 기업 상장 ‘길상(吉翔)’ 계획을 꾸준히 전개했는데 아련기계의 성공적인 상장은 기업 발전이 새로운 로정에 들어섰음을 상징할 뿐만 아니

지역생산총액이 46억 9,000만원에 달해 동기 대비 7.5% 증가, 규모이상 공업 증가치 13억 4,000만원에 이르러 동기 대비 18.7% 증가, 고정자산 투자 4억 8,000만원에 달해 동기 대비 35.6% 증가, 규모이상 봉사업 중점 업종 영업수입 3.64억원에 이르러 동기 대비 369.2% 증가, 관광 종합수입 20억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16.7% 증가...

이 수치는 돈화시가 2025년 1분기에 완수한 주요 경제지표이다. 팔목할 만한 성장은 돈화시에서 의약산업을 토대로 기계제조, 식품가공, 목제품제조, 에너지광산, 문화관광, 물류산업, 신에너지, 신장비, 신재료를 주체로 하는 ‘1+6+3’ 다원적 산업구도 구축을 통해 거둔 성공의 가장 훌륭한 증명으로 된다.

◆ 기술혁신으로 의약산업의 고차원 발전 이슬

의약산업은 돈화시 기간산업중의 하나로 오동약업, 화강약업, 개래영약업의 생산액은 10억원을 초과하고 전 시 규모이상 의약제조 규모는 70억원에 달하며 생산액은 길림성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돈화시는 북방지역 특유 약재 자원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오동, 화강 등 전통 브랜드 중약제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신형 중의약을 크